



조선시대 갑인자 만든 이천

‘과학기술인 명예전당’에 헌정

과학기술인의 업적과 발자취를 항구적으로 보존 전시할 ‘과학기술인명예의 전당’에 최초로 헌정될 선현과 현존 과학기술인 15명이 선정됐다.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문화재단은 최근 고려 말 화약제조비법을 터득해 전파하고 화기 제조기관인 화통도감을 설치해 군사현실에 맞는 무기 기술을 개발한 최무선과 혼천의 자격루 등 천문관측 기기 등을 제작한 조선시대 대표적 과학자인 장영실을 포함한 15명의 헌정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헌정대상에는 조선시대 인쇄물 발전을 이끌고 천문기기 제작과 도량형 표준화에 힘쓴 이천, 조선 세종대왕 때 천문역산 연구를 주도하는 등 최고 천문학자로 인정받은 이순지,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의학이론과 임상치료를 확립한 허준 등이 포함됐다.

또 지동설과 무한우주론을 주장하며 조선 후기 과학사상 발전에 선구적인 역할을 한 홍대용, 조선시대 지도학의 결정적 성과물인 대동여지도를 비롯해 청

구도와 지구도를 편찬한 김정호가 15인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20세기 우리나라 과학발전에 기여한 근현대 과학자로 종두법을 도입한 지식영, 육종학의 대가인 우장춘, 한국 최초 이학박사인 이원철, 세계적인 이론 화학자인 이태규 선생이 선정됐다.

또 우리나라 산업기술의 현대적 초석을 다진 안동혁 전 상공부 장관, 속성수 종 개발로 국토 녹지화에 기여한 현신규 전 농업진흥청장, 3대 과학기술 기본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관계 법령을 정비한 최형섭 충남대 석좌교수, 유행성 출혈열의 병원체와 예방 백신, 진단 방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호왕 대한민국 학술원 회장이 헌정대상자 15인에 포함됐다.

헌정대상자 15인은 과기부와 한국과학문화재단이 과학기술 관련 단체, 기관 또는 추천인단 추천을 받은 과학기술인 중에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와 과학계 원로 전문가로 이뤄진 인물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명예의 전당에는 선정된 인물의 연구

성과, 논문, 저서, 유품, 모형 등이 전시 소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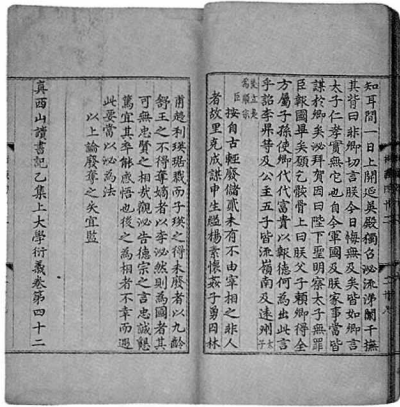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은 2006년 수도권에 새로 건설될 국립과학관에 1,000평 규모로 새로 조성되며 이곳에 총 30명 내외의 과학기술인이 헌정된다.

이천은 누구?

본관 예안(禮安). 호 불곡(佛谷). 시호 익양(翼襄). 군부판서 이송의 아들이다. 1393년 별장(別將)에 임명되었다. 1402년 무과 초시에, 1410년 무과 중시에 각각 급제하여 동지총제(同知總制)·충청도 병마절도사 등을 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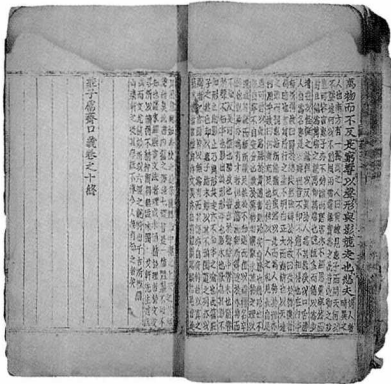
1420년 공조참판으로 세종의 명을 받아 경자자(庚子字)를 만들고, 1434년 중추원지사로 갑인자(甲寅字)를 만드는 등 세종대의 인쇄술 발달에 크게 공헌하였다.

1437년 평안도 도절제사로서 여진족을 토벌하고 4군의 설치를 건의하여 이를 실현시켰다.



▲ 진서산독서기를집산대학원의. 1434년에 만든 갑인자(甲寅字)로 찍은 책인데, 권말에 주조한 해에 찍었음을 알려주는 간기(刊記)가 붙어있다.

▼주나라 장주가 지은 '장자'에 송나라의 임희일이 뜻을 풀이한 책으로 세종4년 1425년에 경자자로 만들어졌다.



1438년 호조판서로 있으면서, 간의(簡儀)·혼의(渾儀)·양부일구(仰釜日晷) 등 천문기구의 제작을 지휘했다. 1450년 중추원지사가 되고 중추원판사에 이르러 쯤장(杖)을 하사받았다. 무신으로서 요직을 역임하면서 세종대의 과학기술 발전에 큰 공을 세웠다.

경자자란?

1420년(세종 2) 경자년(庚子年)에 만든 금속활자다.

1403년(태종 3) 최초의 금속활자인 계미자(癸未字)를 개량한 것이다.

계미자는 모양이 크고 네모나지 못하며, 뒷면이 송곳같이 만들어져 밀랍에 꽂아서 판을 짜는데 어렵고 잘 움직였다. 그리하여 활자의 모습을 보다 작으면서도 네모나게 고치고, 조판용 동판과 활자를 평평하고 바르게 만들어 인쇄할 때 밀랍을 사용하지 않아도 서로 잘 맞아 활자가 움직이지 않게 개량하였다.

이 활자로 인쇄한 책에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1권) 등이 있다.

갑인자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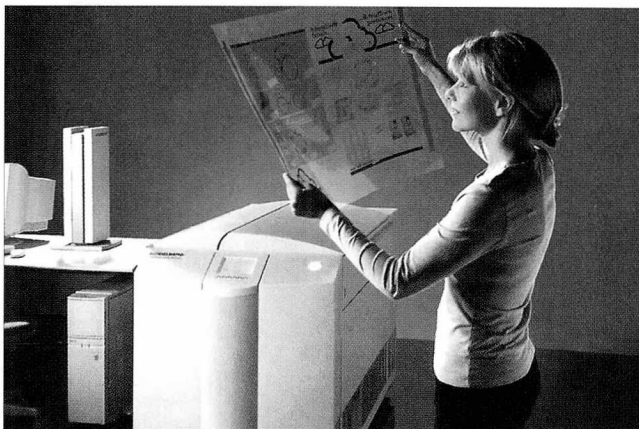
1434년(세종 16)에 만든 동활자(銅活字)로 위부인자(衛夫人字)라고도 한다.

왕명을 받아 중추원지사(中樞院知事) 이천(李)·직제학 김돈(金墩)·직전(直殿) 김호(金鎬)·호군(護軍) 장영실(蔣英實)·사역원첨지사(司譯院僉知事) 이세형(李世衡)·사인(舍人) 정척(鄭陟)·주부(主簿) 이순지(李純之) 등이 경연(經筵)에 소장하고 있는 《효순사실(孝順事實)》《위선음줄(爲善陰)》《논어》 등 명(明)나라 초기 판본(版本)을 자본(字本)으로 삼고, 모자라는 글자는 진양대군(晉陽大君)의 글씨를 본떠서 만든 것으로, 20여 만 자나 주조하였다.

이 갑인자는 경자자(庚子字)보다 좀 크고 훌륭하다. 현존하는 것은 없고, 그 인쇄본으로 《신편음점성리군서구해(新編音點性理群書句解)》(2책) 《증간왕장원집주분류 소등과선생시(增刊王狀原集注分類蘇東坡先生詩)》 《신간대자부음석문삼주(新刊大字附音釋文三注)》가 있다.

홈페이지 : www.newskp.co.kr

부가가치 창출! '투자비 절감' 이 관건입니다



고가의 장비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중고기기로도 훌륭한 제품을 생산하고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중고인쇄기 및 프리프레스 장비 전문공급 업체인 뉴에스케이피와 상의 하시면 그 길이 보입니다."

(주)뉴에스케이피

서울시 중구 필동2가 16-24 남지빌딩 401
전화 : 2279-0919 팩스 : 2271-1221 홈페이지 : www.newskp.co.kr

취급 품목 : 각종 인쇄기 · 컴퓨터기기 일체 · 프리프레스장비